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10시
오전 (4부) 2시
주요일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5월 26일 (제691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 예배 및 인터넷 생방송)



홍우칼럼

세상에 제일 귀한 열쇠란?

‘필요’란 단어는 나에게 성공의 징검다리요, 발명과 발견, 그리고 상상의 나래였고, 나를 성장, 발전시키며 눈·귀·입·머릿속에 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한 나의 어머니였다. 오늘의 나는 ‘필요’란 어머니의 ‘기필코’란 아들이었다. 기필코 이루고 말리란 정신으로 나를 키우신 위대한 스승이요, 그 어머니는 다시 말하지만 ‘필요의식’이었다. 난 유난히 이 단어를 좋아한다. ‘난 기필코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다’고 한 링컨과 ‘경제공황을 이기고 경제를 살리리라’며 소아마비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난 로마를 복음화 해야겠다’는 일사각오 정신으로 풀뿔 뚫었던 바울...

나도 인류를 구원하려 십자가 지고 죽음을 앞세우신 예수께 이 기필코 정신을 배웠다. 기필코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오늘도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있다.

당신도 꼭 이를 일 있으면 ‘기필코’란 운도계로 측정해보라. 3년 6개월 가름으로 인한 기근과 조들림 속에서 엘리야의 그 애절함, 중풍병자 친구를 기필코 고치고 말리란 친구들의 애절함,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터의 애절함,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애절함, 아들을 얻기 위한 한나의 애절함, 이것들은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는 정신에서 시작된 것을 알라. 이 모든 것을 열거하자니 지면과 시간이 짧다.

예수의 진리는 ‘기필코 정신’과 ‘불구하고’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기필코 인류를 구원하리란 정신이 오늘의 우리를 구원하였고, 이것이 곧 사랑이다.

‘필요’ 때문에 ‘기필코’란 아들은 성공했다. 어머니 ‘필요’에게 효(孝)하려고.

이 길만은 가야할 길이다

중국 영공 통과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비엔나(Vienna) 행 여객기는 이륙이 마냥 지연되고 있었다. 기내에 앉아 기다리기를 약 40분, 정시보다 40분 정도 지연 이륙한 여객기는 약 11시간의 비행 끝에 오스트리아(Austria) 비엔나 공항에 착륙하였다. 입국 절차는 매우 간단하였다. 그 혼란 입국서류조차 없었다. 입국장에는 한국에 왔던 안(Jan) 목사와 미리 도착해있던 우크라이나(Ukraine)의 슬라바(Slava) 목사 등 반가운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일하다. 숙박비가 저렴한 대신 마치 기숙사 같은 느낌이 든다. 침대도 사이즈가 매우 작다. 부대시설도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1박하고 떠나는 속도로 이만한 것도 없다. 목사님은 안 목사의 선택이 매우 지혜로웠다고 말씀하셨다. 브라티슬라바의 호텔은 가격이 60유로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경제원리 아닌가!

이튿날 아침, 새벽 6시에 식당에 모였다. 한국과의 시차는 7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나 늦은 점심식사 시간

하는 길입니다. 비록 내 몸이 부서지고 고통스러워도 이 일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얼 걱정합니까?”

안 목사로서는 물질로 뚝뚝하던 요셉(Josef) 목사가 연락이 두절되고, 당장 호텔 회의실 임대료를 비롯한 비용문제



러시아어, 체코어 3자 통역으로 진행된 체코 목회자세미나

비엔나에서 첫 세미나가 열리는 체코(Czech) 제2의 도시 브르노(Brno)까지는 약 2시간 반 걸린다고 한다. 안 목사는 비엔나 공항 주변의 호텔비가 200유로가 넘을 정도로 매우 비싸니 브라티슬라바(Bratislava)로 갈 것을 제안했다. 슬로바키아(Slovakia)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는 비엔나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었다. 예전 공산주의 시절 같으면 국경 지역에 삼엄한 경비가 있었을 테지만, 오늘날 유로(Euro) 국가들 사이에 국경 통과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다못해 통행료 창구조차 없다. 단지 이정표만이 오스트리아에서 슬로바키아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산시절에 건축된 동유럽의 호텔들은

인 셈이었다. 겨우 일어나 자리에 합류한 안 목사에게 목사님은 체코 및 슬로바키아 방문의 소감을 피력하셨다.

“나는 이곳에 오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체코와 슬로바키아 뿐 아니라 주변의 오스트리아, 폴란드(Poland), 루마니아(Romania) 등 구 공산권 국가들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합니다. 안 목사는 이번 일에 성냥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성냥불 하나가 건물 전체를 태우듯이, 비록 오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슬라바 목사와 내가 꿈꾸는 구조선 및 동구권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은 해야만 합니다. 이 길은 가야만

로 고민이 많은 자였다. 사실 처음 가는 지역인 만큼 미리 예상한 바였다. 목사님은 늘 말씀하신다.

“주변 먹고, 안 주변 우리가 내면 된다. 어찌 됐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것이니 그것만으로 넘치도록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패처럼 한국의 성도들이 감사할 때가 없다. 아낌없이 선교를 위해 물질을 아끼지 않으며 기도도 후원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말이다.

〈8면 계속〉



뜨겁게 기도하는 잠비아 출신 마태 목사



갑자기 한 여인이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였다



세미나를 마치고 복도로 따라나와 안수를 받고 걷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50:15~21)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도단에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 후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그를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부잣집 아들이며 머슴으로 살아야하는 기막힌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 후로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간 요셉은 바로의 꿈 같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대로 7년 대흉년 후에 7년 대풍년이 들자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된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가나안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와 애굽의 고향 땅에 살게 합니다(창42~46장).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방패막이었기 때문에 걱정 없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요셉이 칼을 뽑아들지 못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 내가 당신들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창50:19~21).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공동번역에는 “내가 하나님 대신 별이라도 내릴 듯싶습니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곧 원수 갚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복수를 했다가 저주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허위 족속 하물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창34). 세겜은 디나를 심히 사랑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은 심히 분개하였습니

다. 할례도 받지 않은 짐승 같은 외간남자에게 동생이 강간당한 것이 치욕스러워서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랐습니다. 그래서 하물에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한민족이 되고, 동생 디나도 줄 수 있다는 갑언이설로 속입니다. 그러자 하물이 그 성읍에 출입하는 모든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삼일 제 되던 날, 디나의 두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에 쳐들어와 하물과 세겜은 물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과 가족을 빼앗고,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



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스라엘 지파들 속에 흠여질 것이라는 저주를 합니다(창49:5~7).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 확립에 큰 공을 세웠고, 다윗에게 일등공신이었지만, 복수심에 불타 이스라엘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입니다(삼하3:27).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삼하2:8~10).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있었을 때 요압은 다윗의 군장으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장으로 전쟁이 나갔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요압은 이 원한을 갚기 위해 매를 기다리다 다윗에게 항복하고 귀순하고 돌아가는 그를 쫓아가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그런 그의 최후는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

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찢겨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찌로다”(삼하3:29). 또한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왕상2:6)고 하며 요압의 죄 값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소 안에 숨어 있던 요압을 살해합니다(왕상2:34).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삼하13). 그런데 어느 날, 다말이 이복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내쳐졌습니다. 압살롬은 이에 대해 할구하다가 2년이 지난 어느 날, 양털을 깎는 파티에서 형 암논을 죽입니다. 2년 동안 복수의 날만 기다리고 준비해 온 것입니다. 그것 은 다

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인 요나답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이니이다”(삼하13:32). 결국 압살롬은 다윗군과 싸우던 중 도망하다가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삼하18:9~18).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17:13). 악을 종결짓는 방법은 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외위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나오는데,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

다. 그래서 바로 뒷 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빛은 닢은 다리 뻗고 자나 때면 닢은 웅크리고 잔다

않고, 오른 뺨을 치면 왼 뺨을 돌려대고 더 치라 하기를 바라시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 조르는 자에게 십리를 함께 가주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마5:39:44). 여러분,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십시오. 기독교는 용서가 근간이 된 종교입니다.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적용되었더라면 어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은혜를 입고서 나를 조금 힘들게 한 자, 나를 모함 한 자, 나에게 손해 좀 입힌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기어코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또 하나, 남을 흠탕물 속에 처박으려만 나도 흠탕물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 마음이 먼저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죽을 맛이 됩니다. 독을 풀고 있으니 먹은 것이 소화 되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또 기도는 나옵니까? 그래서 내 영·혼·육이 먼저 시들고 엉망이 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눅23:34). 이를 본받아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행7:60).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덮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1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출애굽기(Exodus)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14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였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선민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사제도와 성막 제도를 기록한 레위기와 광야 방랑기인 민수기, 그리고 모세의 회고록인 신명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세오경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책입니다.

1. 기록 목적

- (1) 언약을 변경치 않으시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 (2) 구속사의 핵심이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 (3)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하여

2. 핵심 주제

- (1) 출애굽기의 핵심주제는 구속(敍贖)입니다.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구절이 6:5~8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여(6하)
 - ②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7상)

- ③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8).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유월절 양'입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흠 없는 어린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집에서 도 죽음이 있었습니니다. 죄가 없는 어린양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교리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 (2) 구속이 핵심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당신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25:8).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3. 관통을 위한 포인트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1~18장)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과이고, 후반부는(19~40장)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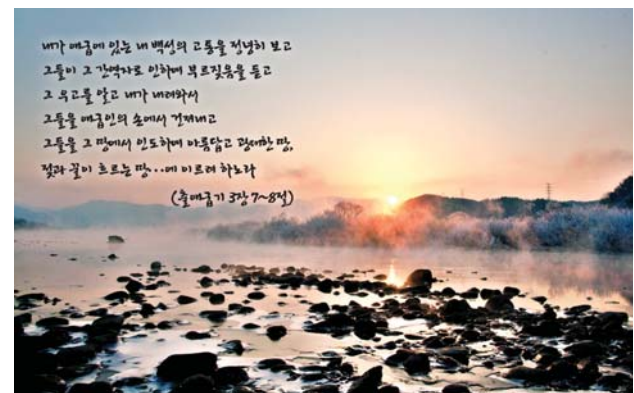
- (1) 전반부 : 출애굽의 역사
 - ①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심(1:1~4:31)
 - ② 모세의 출애굽 요구와 바로의 거절로 인한 대결(5:1~7:13)
 - ③ 하나님의 10가지 재앙(7:14~11:10)
 - ④ 유월절과 출애굽, 홍해의 기적(12:1~15:21)
 - ⑤ 광야에서의 인도와 보호(15:22~18:27)
- (2) 후반부 : 시내산에서의 율법 제정과 성막 제작
 - ① 십계명과 율법의 제정(19:1~24:11)
 - ② 성막의 계시(24:12~31:18)
 - ③ 금송아지 숭배 사건(32:1~34:35)
 - ④ 성막의 제작(35:1~39:43)
 - ⑤ 성막의 봉헌(40:1~38)

4. 출애굽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 (1) 유월절 어린양(12:1~51) :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고전5:7)
- (2) 만나(16:4~36) :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요6:35)
- (3) 반석의 생수(17:1~7) :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의 보혈(고전10:4)
- (4) 성막과 모든 구조와 재료, 색상 및 배열 :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 (5) 모세의 사역(구원자, 입법자, 중재자적 역할) : 그리스도의 모형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여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중심교육국



::성경에서 배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최근 대통령 대변인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순방길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사적인 일로 취급되며 개인의 자질이 문제시되었지만, 점차 일이 커지면서 급기야는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는 인사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대변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도발위협으로 한반도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시점에서, 그는 대변인 개인이 아닌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대통령과 같은 심정이 되어 미국 땅을 밟았어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깨닫고, 스스로 매사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성경 속에 소개된 믿음의 선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주신 신분을 잊지

않은 반면, 실패자들은 대부분 이를 망각한 경우가 많았다. 일찍이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활저히 모세를 보필했던 여호수아를 살펴보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회말을 떠날 줄 모르고 기도할 만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출33:11), 40년 동안 모세의 부관으로 있으면서도 특별한 실수나 모세를 거역한 기록이 전무할 만큼 성실한 인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각 지파 중 족장 되는 자들 12명을 회말꾼으로 발탁하였을 때 여호수아도 거기 있었다. 당시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것은 가나안 땅이 들어갈 만한 곳인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반드시 정복할 것을 전제로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 각 지파의 수장들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10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 40년을 기다려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만큼은 자신들이 파견된 이유를 망각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으니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며 백성들을 독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민13). 이렇듯 그는 모세를 돕는 2인자 임에도 모세만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 오히려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정복과 그 땅의 분배를 완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반대로 삼손의 경우는 사사, 즉 이스라엘의 영적지도자로 세운 받은 자신의 신분을 까맣게 잊은 인물이었다. 나실인이었던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그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각별한 은혜와 은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는 귀하게 선택 받은

자신의 몸을 이방여인과 창기에게 주는 무절제한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민족을 위한 전쟁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따른 살생을 서슴치 않았다. 결국 그는 눈이 빠지고 뺨뺨을 돌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고,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힘을 부여받지만 블레셋사람 3천명과 함께 유명을 떨치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작금의 사건은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이것이 만일 왕정시대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항기요, 통령관이요, 대변인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직분을 어떻게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깊이 유념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하인명

renming@daum.net



- 김형현 옮김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논어의 맨 첫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열 집이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만큼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한 공자가 평생 동안 배우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여 년간의 학업에 열중하고, 지금도 매일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절이기도 합니다.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 : 유봉 자원방래 불역낙호 -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는 논어의 두 번째 문장으로서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3,000명이 나와 붓글씨를 쓰면서 화면에 등장했던 문장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2,500년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논어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지난 현대사회에 그의 삼천 제자와 함께 재탄생한 순간이었고, 인화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친 구절입니다.

「人不知而不, 不亦君子乎 : 인부지이불은 불역군자호 -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노여워하지 아니하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는 논어의 세 번째 문장으로서 인내와 배려를 우리 삶의 도리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이 논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핵심문장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 후대에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귀감이 된 공자의 겸손함과 스승 됨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논어는 세상사는 이치,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해 공자가 가르치거나 혼자 한 말, 제자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것, 제자들끼리 하던 이야기, 또한 제자 이외에 당대의 정치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논어는 한 사람의 저자가 일관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생애 전체에 걸친 언행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경전들과는 달리 격언이나 금언을 모아 놓은 듯한 성격

을 띠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학이’ 편부터 ‘요할’ 편까지 총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의 이름은 그 편 내용의 첫 두 글자를 딴 것으로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하면 인(仁)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3가지 덕목, 즉 지(知, 지혜), 인(仁, 어짐), 용(勇, 용기)을 가르쳤는데, 그중에서 ‘인’을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세워주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남이 먼저 이루도록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적극적인 실천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평생 동안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논어를 통해 현재 정보화 사회가 던지는 평생교육이라는 명제와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말씀을 함께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관섭 장로

kwansup1029@hotmail.com

::생필에세이::

::문화공감::

제주 올레

오래 전에는 신희여행지로 1순위였던 제주도. 돌 많고 바람 많은 그 곳에 “올레길”이 있다. “제주 올레”의 “올레길”은 자연 그 자체를 즐기고 만끽할 수 있다.

성산의 시흥초등학교 부근에서 시작되는 1코스부터 바닷길을 따라 표선, 서귀포, 모슬포까지 제주도 남쪽을 돌아 서쪽의 대정, 용수, 저지, 한림을 지나 공항 부근인 제주시내와 함덕, 김녕까지, 그리고 철새 도래지인 하도리를 따라서 다시 성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올레길이다. 총 21코스의 올레길은 제주의 명소인 쇠소깍, 외돌개, 천지연폭포, 영도폭포 등을 비롯하여 숨은 비경인 알뜨르 비행장과 생이기정 바닷길과 제각각 매력에 넘치는 각종 오름들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트레킹 코스이다.

본격적으로 트레킹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친구들, 연인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1박 2일로 올레길에 가보길 추천한다.

올레길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추천 사항을 덧붙인다.

1. 저가항공사의 경우, 평일 운임은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여 1~3만 원대로 결제가 가능하다 (1인 편도 기준).

2. 2명 이상의 동반 여행을 추천한다. 그리고 제주 공항의 종합안내소에서 ‘올레지킴이’ 장치를 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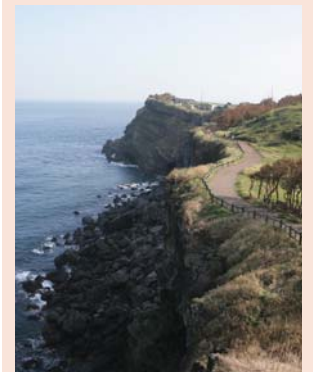
3. 무거운 가방을 옮겨주는 ‘올레 옮김이’ 서비스가 있다. 한 구간이 15~20km 정도이니,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코스마다 숙박 시설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 제주의 밤은 도심의 밤만큼 밝지 않다. 일출, 일몰 시각에 따라 이동할 것을 권한다.

5. 가족 단위의 여행이라면 6,7,10,12코스를, 등산을 좋아한다면 11,13코스를 추천한다.

한제영

korean.cinephile@gmail.com



크리스천의 유머와 해학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살수는 있지만, 유머 감각이 없다면 세상살이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압축해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얼마 전, 한 음식점에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즐거운 대화 끝에 사장님이 흥에 겨워 내게 와인을 권하셨다. 그러다 ‘아차! 싶으셨는지 “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술 안 드시죠?”라고 민망스러워 하시며 술잔을 숨기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얼른 “저, 와인 한 잔 정도는 마셔요.”라며 그분이 민망스럽지 않게 화답하였다. 금세 얼굴빛이 밝아지시며 그 분이 하시는 말씀, 당신의 아들과 며느님이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 엄숙하고 딱딱해서 교인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라, 선생님은 달라서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선생님만 같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니실 수 있더라 웃으셨다.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경건과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유머감각을 잃어버린 채, 행간의 웃음 코드를 이해하지 않고 해학의 여유를 즐기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일까? 그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립보서 4:4)는 성경 구절이 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성령과 은혜에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웃음샘’을 열어두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교감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준비하며, 그 대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는 ‘이에 더하여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고...’라는 구절이 있다. 맥아더 장군은 당신 자녀가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뿐 아니라 유머 감각이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도 바울도 상대의 마음을 열고 형편과 처지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는 경건함보다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웃음이 넘치는 대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다면, 서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해학과 기지를 가미하여 주님의 깊은 뜻을 전한다면, 크리스천의 경건함을 승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자유

oh.free@hanmail.net

Jesus Mania by Shin

이번 주말에 대청소 어떠세요?

집안 말고 머릿속을요
수북이 쌓인 잔걱정들, 수많은 세상 생각들, 늘러붙은 불안들
작정하고 싹, 다, 비워봅시다

다시 주님의 생각, 기쁨, 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7절)

::내 아이 잘 키우는 법::

더운 날씨, 오해하기 쉬운 육아상식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127:3).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지금 여름을 나는 육아상식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름엔 무조건 시원한 것이 좋다? 아이가 더울까봐 에어컨을 너무 심하게 트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실내의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몸의 면역기능과 재생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땀을 흘린다고 옷을 모두 벗겨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땀이 마르면 몸이 차가워져 배탈이나 설사가 나기 쉽기 때문에 땀을 흡수하고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는 헐렁한 옷을 입히는 것이 유익합니다.

두 번째, 아이 잠자리는 시원한 창가나 벽이 좋다? 창가는 통풍이 잘되는 대신 먼지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이기도 하며, 여름철 길게 늘어져 들어오는 직사광선이 아이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잠자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벽은 장마철이 다가오면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가 서식하기 쉬우므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땀을 많이 흘렸으니 물과 과일

은 많이 먹일수록 좋다? 체표면적이 작아 탈수에 빠지기 쉬운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 수분보충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이나 음료는 좋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체온 변화와 장에 무리를 주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과일은 당분함량이 높아 식사에 흥미를 잃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장염에 걸려 설사하는 아이는 무조건 굶겨야 한다? 여름철 식중독이나 장염이 유행하면 아이들이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아이를 무조건 금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수분 부족으로 탈수가 올 수 있고, 장의 운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죽 종류를 조금씩 자주 먹여주면서 아이의 상태가 회복되는 정도를 지켜봐 주는 것이 좋으며, 아이가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소변을 8시간 이상 안보는 경우 응급한 탈수 증세로 간주하여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날씨가 따뜻해지면 보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날이 더워지면 오히려 사워나 물놀이를 자주하면서 피

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물놀이나 샤워를 한 뒤에는 수분함량이 높은 바디로션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벌레에 물리면 소독을 위해 소주나 침을 바른다? 모기나 기타 다른 벌레에 물리면 소독을 한다는 의미로 소주나 침을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소주는 피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며, 침 역시 타액 속에 수많은 세균으로 인해 오히려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벌레에 물렸을 경우 시원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기약이나 소독약으로 적절히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신의학

witmals5056@naver.com



세상을 보는 창

원조 가수와 모창 능력자들이 함께 겨뤘 최종 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 화제다. 상위 라운드에 진출한 모창 능력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이 모방하고 따르는 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또 그들은 원조 가수에 버금가는 가창실력을 얻기 위해 단 한 곡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렇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해당 가수의 마음은 어떨까? 물론 모창 능력자가 원조인 자신을 제치고 우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하지만, 자신을 닮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모창 능력자들을 향해 깊은 애정을 표하며 크게 기뻐하고,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는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본야나 그 사람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 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나 내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또한 그 분을 진정으로 경의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바라시고 (마19:21, 요21:22), 우리가 잘 되고 주님보다 큰 일하기를 기대하신다(요14:12). 바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 모세 같네? 바울 같네? 베드로 같네? 예수를 닮았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 배우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해서 흉내 내고 모방하다보면 닮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혜

evergreen-love@narnal.net

Good News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좋은 말을 들려주려고 하면 “또 설교하고 있네.”라며 귀를 막습니다. 또 편한 것을 찾다다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기록한 일보다는 세상

의 쾌락과 재미를 선호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 S. 루이스가 쓴 ‘엄청난 이혼’이라는 책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지칭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둡고 고통스러워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삶속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정기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의 요

금은 무료이고 매 시간마다 떠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행 버스를 타는 사람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저 버스를 타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술도 마 음 놓고 마시지 못하고, 바람도 피우지 못하고, 남을 홍보는 재미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재미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이혼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 즐거움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 헤어져서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며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그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나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행 버스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소금이 좋다지만

::나도 건강할 수 있다::

소금의 짠맛이 요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신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병과 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지면서 모두들 멀리해야 할 맛, 피해야 할 맛이 되었습니다. 한때 금요로 소금을 받았다는 값나가면 시절도 있었고 막상 없으면 곧바로 귀한 몸이 되지만 오늘날 우리 식탁의 애물단지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다섭취하면 다양한 위험성을 초래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고혈압을 들 수 있습니다. 식염을 과다 섭취해 위장에서 충분히 배설되지 않으면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혈관에 압력을 주어 혈압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금은 고혈압의 적입니다. 소금을 굳이 먹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과일과 야채만 먹어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염분 농도를 맞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인 침팬지도 자연계에서 생육할 때의 혈압은 정상이지만 인간처럼 소금을 먹기 시작하자 혈압이 상승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무염식을 했더니 혈압이 내려갔다는 사실은 이미 반세기 전에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무염식을 시작하자 3주 후 중증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소금기를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비만인 사람이 염분을 섭취하면 혈압이 쉽게 오르기 때문에 소

금기를 줄이는 것이 필수사항입니다. 세계 고혈압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해 소금 섭취량을 1일 6g 이하로 지정했지만 우리의 소금 섭취량은 두 배가 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많은 양입니다. 다른 나라 음식도 짜면 왜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이 더 많다고 할까요? 우리나라 음식은 염장식품도 많지만 매일 즐겨먹는 국이나 찌개류가 뜨겁고 다른 양념이 많은 짬을 가려 짜도 짬 줄 모르고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금기를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줄여야 하고 서서히 줄여 삼삼한 맛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저염식 실천으로는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식초나 후추로 맛을 내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되도록 먹지 않도록 하며 짜고 매운 음식은 먹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분의 배설을 돕는 것이 칼륨입니다. 칼륨은 야채, 과일, 어패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 야채샐러드와 식후의 과일로 염분의 배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염분을 체외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걷기, 자전거타기, 수중보행 등 심박수를 그다지 올리지 않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좋겠습니다.

Dr. 조희경

pearl9230@naver.com



이권민 장로 부부

“300명이 들어가는 내 집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 20년. 이권민 장로는 지난 2012년 가을, 주저 없이 몽골교회 성전건축에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신앙의 핵은 실천이라고 말하는 이권민 장로는 79세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감당하는 청년 정신을 지닌 분이였다. 만물이 악동하는 완전한 분날, 이권민 장로를 만나 그분의 신앙과 삶을 들어보았다.

1991년, 전배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교사상이 강했던 제가 미국이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199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

를 하던 중, 꿈속에 말씀으로 계시를 받았습니 다. 당시 저는 미국생활에 대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급한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나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전도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 어렵게 시험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저의 아픔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다시금 꿈속에서 수석합격을 할 것이라는 계시와 함께 작고 아담하게 300명이 들어가는 내 집을 완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뒤 성전건축에 관한 계시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20년이 지난 뒤 집을 팔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되어 여유자금에 생겼는데, 그 때 다시금 계시가 떠올랐지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들고 이시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청했더니 그 돈으로 한국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를 배워서 세 차례에 걸쳐 계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예수를 영접한지 1년 후, 미국 LA 소재 기도원에 들어가 3일 금식기도

에서 교회를 짓기는 어렵고, 교회를 한국에만 세워야하는 것도 아니니 총회장 목사님을 찾아가보라 하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필리핀에 교회를 지어보라 하셨습니다. 당시 필리핀 세부의 유상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몽골교회를 짓겠다고 기도하던 박용구 목사님이 마침 한국에 들어오셔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2천만 원에 지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몽골교회를 짓는데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박 목사님께 언제까지 지을 수 있냐고 묻자 박 목사님은 연말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회장 목사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는가? 내가 기도원 호텔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는가?”라며 단호한 어조로 주문하자 박 목사님은 6월까지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2천만 원을 더 보냈고, 더 소요되는 경비에는 교회에서 지원하여 이제 오는 6월이면 몽골교회가 완성됩니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입당예배에 갈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온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니한 목사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TV로 보

면서 저것이 진짜 목사라고 생각했고, 한국에도 저런 목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초석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2년 동안 사모하다 우연히 집에 들어온 전단지를 보고는 우리 교단으로 교회를 옮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후두염으로 하루 두 번 각기 다른 병원을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아내가 목사님을 만나 안수를 받고 완치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후 장로 피택을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 소망은 무엇보다 먼저 몽골교회가 잘 완성되어 300명 성도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뿐 아니라 이 글을 접하는 분들도 힘 있을 때, 총회장 목사님을 도와 국내 지교회나 세계 교회를 짓겠다는 꿈을 갖고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들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비록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상급이 아닐까요? 끝으로 유상진 목사님도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권민 장로

(글:하인명 renming@daum.net)

청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저희가 그 홀려서 시절에 되었던 목사님의 모습을 지혜보다 크시고 감화시며,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30여년의 세월이 지난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뛰시는 목사님을 뵈올 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생물학적 나이로는 물론 것 취하고 쉬엄쉬엄 하셔도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 없을 텐데, 너 마니인 사람이 없어!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지시고 귀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충성을 지금까지 유지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때마침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를 가슴 깊은 곳에 새겨져 기억나게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너무 좋아!” “너희는 나라와 교회의 미래야” 라는 청년들의 고백과 사교와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미래원에서 사신 모자를 뽀셔 보이시며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 청년 세미나를 통하여 다음세대의 영적 성장과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을 배출코자 애쓰시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 저희의 짧은 소경으로 말과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의 어둔한 글로서 목사님의 사랑에 응답코자 이렇게 펜을 들어 봅니다.

그 홀려서 시절에 되었던 저희들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 미래는 그 화를 위해, 각정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준비할 때요. 일어날 때입니다. 목사님의 믿음과 열정을 본받아 회고각 되기 전에 먼저 회신을 다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목사님께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날때 끝까지 나를 감싸려 합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됩니다.

(You raise me up 곡)

이 곡의 가사 말처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버림목이 되어 주셨다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 큰 나목가 되어 우리교단과 목사님께서 평히 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도 돕겠습니다.

늘 건강 하셔서 오래도록 저희 곁에 계셔 주세요!

소송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나마 표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목사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되뇌어 보

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형 청년 일동-



설경구(영화배우)

학창시절, 배우를 하겠다는 생각을 뚜렷하게 가진 적은 없었다. 특히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외모도, 성격도, 모두. 그럼에도 내가 대한민국의 배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처음에는 연출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극 영화과에 지원했었다. 졸업 작품을 연출하고, 학교 소속 극단으로 가게 되었지만, 학교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서 <지하철 1호선>의 극단인 '학전'으로 향했다. 그 곳에서 나의 스승 김민기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몇 편의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었다. 내가 배우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영화는 <박하사탕>과 <오아시스>, <공공의 적(강철중)>, <살미도> 그리고 <역도산>과 <해운대> 등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배역을 잘 표현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랐다. 그리고 설경구가 아닌 영화 속 인물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막막하였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연히 얻게 된 직업이었기에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 평범했던 내가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탐구와 끈기, 열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

던 것이다. 그래서 영화 대본을 받으면 최대한 그 배역의 '웃'을 입고 살면서 그 인물처럼 살았다. 말투, 행동, 눈빛까지 모두 배역 속 인물이 되어 제2, 제3의 인물로 계속 바뀌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영화 속 인물이 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보면 이렇다.

<박하사탕>은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었지만, 이창동 감독님과 그의 작업은 참으로 힘에 겨웠다. 주연 영화, 한 사람의 일대기, 주인공의 좌절과 비애 등, 김영호가 되어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첫 주연 영화에서 짧은 시간에 20대에서 40대까지의 변화를 그려내야 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하사탕> 때의 절실함이 이후의 많은 영화들에서도 그 배역의 삶으로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과 함께 한 두 번째 작품인 <오아시스>의 흥행두로 사는 동안, 촬영 중에 영화 스태프들마저 나를 촬영장에서 내쫓을 정도로 흥행두가 되어 살았다.

한 번은 <살미도> 촬영 중에 전 부대원이 서울 모처에서 화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실제로 공비들이 나타난 줄 알고 식겁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역도산>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전작인 <오아시스>에서보다 무려 26kg 이상 몸무게를 늘리고, 완전히 일본어로만 연기를 했었다. 스모선수들과 레슬링선수들과 실제로 경기를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였

나의 영화 인생

다. 촬영장에 숙소를 잡고는 낮이고 밤이고 촬영장 근처를 배회하며 영화 속 배역이 되려고 애쓰며 살았던 시절들이다.

그 시절에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 영화에 미치고 배역에 미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가족, 친구들은 자연스레 나와 떨어져 버린 것이다. 결국에는 나도 지쳐버렸다. 내 안의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어느 날, 영화 <해운대>를 촬영할 때였다.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영화가 흥행되어 천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임을 깨달은 것이다. 영화에 전념하고 몰입하며 살아온 세월도 어느덧 20 여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아주 가끔, 초심을 잃고 느슨해지는 나를 발견한다. 어느 사이에 연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 오래 전의 그 열정과 간절함이 퇴색해가고 있

음을 느꼈다. 출연한 영화마다 흥행가도를 달리면서 총무로 최고의 "블루칩"으로 인정받는 배우의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불편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오래 전, <박하사탕>의 김영호처럼, 김영호를 연기했던 그 순수한 열정만 있던 그 시절, 그 열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한자리에 안주하다보면 처음 소중했던 마음이 식어가기 마련이다. 책장의 책이나 공원의 잔디 의자가 풍파를 견디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낡고 퇴색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할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이다. 지금까지 달리고 달려 온 것처럼, 또 다른 정상을 향해서 더욱 열심히 달려보고 싶다.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이기 때문이다.

영화배우 설경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생각이 길이다!

중증병자 친구들이 지병을 앓고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은 사건(역2),
키작은 사제가 오히려 오히려 예수를 만난 사건(역19).
이것이 바로 길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생각이다.

::성경에세이::

1+1=1

아들아!

'1+1'은 얼마니? 당연히 '2'지. 내가 서너 살짜리 아이도 아는 걸 물어서 물어본 거겠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산술적인 답은 둘이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이 너무 지배적이란 말이지. 이런 시기에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또 가정에 간절한 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거란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우리'라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이 공간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또 나와 남이 모래처럼, 따로 국밥처럼 따로가 아니라 비빔밥처럼 하나 되어야 맛을 내는 세상이 되지.

우리 민족은 예부터 하나가 잘 땀단다. 찌개 한 그릇에 식구전체가 숟가락을 넣고 먹었고, 밥도 한 그릇 쓱쓱 비벼서 남과도 같이 잘 먹었다. 우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얼마 전 우리 신문기사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세기 전

세계최고의 빈민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찌개 속에 숟가락을 같이 넣고 먹은 단결력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래, 그게 우리의 힘이지.

아들아!

전도서 4장에는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좋은지 잘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9-12).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세계적인 교량인 금문교가 있다. 내가 거기 가보니 다리의 상판이 가는 와이어 줄로 매달려 있더구나. 가늘고 힘이 없는 와이어가 어떻게 저 큰 다리 상판을 매달고 있나 의아했지만, 곧 알게 된 것이 있지. 한 줄

의 와이어는 그야말로 힘이 약하지만, 이게 여러 겹이 되면 굉장히 강해지고, 지진에도 끄떡없다는 것을. 우리나라와 영종도에 세운 교각도 이 다리를 모방한 거 아니니? 손가락 다섯 개가 합쳐져 주먹을 쥔 때 아귀힘이 생기는 거란다. 손가락 하나라도 퍼지면 힘이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지.

'우리'라는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되어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단다(창1:26). 그 세 분이 '우리'로 삼위일체이신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있고, '나' 혼자서는 외롭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나' 혼자서는 무서운 것도 '우리'는 담담할 수 있단다. 그러니 '나'라고 외치지 말고, '우리'라고 말해라.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됨을 알고, 지나친 개인주의를 버리도록 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 18일, 서울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에서는 "Kingdom Come(나라가 임하리라)"라는 주제로 연합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주째를 맞은 이번 연합찬양제는 뜻 있는 청년들이 자발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준비한, 말 그대로 해산의 수고로 낳은 집회였습니다. 각 부서의 자체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금식과 기도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수고와 있었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부요임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실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이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도 그런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찬송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신재식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1면 계속〉

유럽 지역에서 저녁 집회를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저녁 7, 8시에 시작되는 집회는 시차로 따지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2, 3시다. 한참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인 것이다. 남미 지역은 밤낮이 뒤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낮에 잠깐 눈을 붙이고 저녁 집회에 임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정말 신체리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집회를 마치고 식사까지 하고 나면 보통 한국 시간으로 새벽 5, 6시가 된다. 식사로 인해 바로 잠들 수도 없으니 이래저래 밤을 꼴딱 새우는 격이다. 이런 일을 며칠 하고 나면 장사라도 나가 떨어질 일이다. 더구나 집회 내내 외치는 목사님으로서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목사님은 혼신을 다해 세미나에 임하셨다. 러시아어, 체코어, 이렇게 3자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3

자 통역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설교의 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거기다 통역이 리듬을 타지 못하면 설교자의 몇 배 더 힘든 상황이 된다. 슬라바 목사야 이미 목사님 설교에 젖어있는 사람이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안목사는 첫 출전이다. 매끄러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설교가 전달되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만 되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마치 해산한 여인이 고통을 잊듯 다 사라진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첫날 세미나가 그러했다. 마치 영킨 실타레를 풀 듯 하나하나 풀어나간 설교 후,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앞에 있던 흑인 목사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고목처럼 쓰러지는 것이었다. 잠비아(Zambia)에서 왔다는 마테

(Matthew) 목사였는데, 나중에 그의 간증에 따르면 목사님의 손이 머리에 닿는 순간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한 여인이 온 몸을 뒤집고 소리를 질러대며 요동하였다. 제대로 잡아주는 봉사요원도 없었더라 목사님은 안수하시며 그 멍치 큰 백인들을 잡으라 힘드셨지만, 너무나 기뻐했다고 세미나 후에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럴 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른다.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도 회중들의 냉랭한 반응이 돌아올 때처럼 힘든 게 없다. 오늘 그 여인이 귀신이 드러나 요동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첫 방문지 체코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다. 마테 목사가 말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뿐 아니라 동유럽 전체를 태울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브르노 시내의 고풍스런 건축물들



성령이 임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체코 목회자



체코 브르노 세미나 광경



세미나 중 찬양하시는 목사님

::Healing in Music::

음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음악은 영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성품이, 나쁜 음악을 들으면 나쁜 성품이 만들어지므로 음악을 가려줄 것을 권고한다. 엄마들은 태교음악을 들으며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미국에 세워진 비영리조직 'Mtree'의 사역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것 원한다.

'Mtree'의 최영환 대표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세계를 누비면서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서 예술을 택하였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묻히고 자라 결국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티스트들이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겨자나무(Mustard Tree)라는 뜻의 'Mtree'를 탄생시켰다.

이 조직의 첫 사역은 뉴욕과 파리의 한 국인 크리스천 디자인, 아티스트 25명이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시작되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커리큘럼을 통

해 아이들에게 그림으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처음 붓을 잡아봤음에도 놀랍도록 훌륭한 그림들을 그려냈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커리큘럼 중에는 파리에서 온 플루티스트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역자들은 이 시간에 연주자가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아이들 중에는 무슬림 마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찬송가 다섯 곡, 축복송 두 곡을 들려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이 날개 달린 사람의 모습과 그 주변에 십자가 형상을 그린 것이다. 이유를 묻자 아이들은 “내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날개가 있었어요. 주변에는 이런 모양들이 빛났어요.”라고 말했다. 한 두 명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찬양이 연주될 때 환상을 보았다. 또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이 연주될 때에는 열매를 맺은

나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아 황금빛의 뿌리와 잎을 가진 나무를 그렸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한다. “너는 답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마지막 시간에 한 아이는 책을 그렸다. 자기는 열 두 살인데 아직 글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글을 배워서 당당히 하는 것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이에게 꿈이 생긴 것이다.

성경에는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울이 다윗의 연주에 악신이 떠나 평안을 찾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축 사울이 상쾌하여 낮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삼상 16:23).

찬양의 도구인 음악을 인간의 영혼을 맑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하신 자상함에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으랴.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춘계산상집회 오세요!

환절기에는 보약 한 재 먹는 것이 몸에 참 좋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보약을 먹으면 원기회복은 물론이고, 면역력이 아주 좋아져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27일부터 나흘간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있을 춘계산상집회는 영적 환절기에 꼭 필요한 보약입니다. 나른해진 영적 상태를 강화하여 약한 것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집회거든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집회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기도원 집회를 여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보약 한 재씩 먹이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아이들 방학기간도 아니고, 또 휴가철도 아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는데 무리가 뒤따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약 먹을 때 사실 이것저것 계산하면 먹기 어렵지만 몸을 생각해서 우선 먹듯이, 이번 영적 보약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일단 먹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참석해 보리라 결정하세요. 무리하다 싶으면 하루라도 꼭 참석하여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당신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히10:25).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이초석 목사 춘계산상집회

2013년 5월 27일(월)~30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1600-0688, 02-533-9191, 061-392-0633